



가나자와 성(城)의 이시카와 문

## 혁신과 계승을 담당하는 창조환경의 형성 과정: 일본 가나자와의 미술공예대학 및 공예작가\*

아츠코 마에다\*\*

###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일본 공예 분야에서 지역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교육연구기관 및 그 기관과 연계된 개인 간의 사회협력 활동을 역동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일본 본섬의 중서부 연안에 위치한 인구 46만 명의 도시인 가나자와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공예의 혁신과 계승을 이끌고 있는 한 미술대학이 보유한 다양성과 전문지식에 대한 사례 연구이다. 본 연구는 풍부한 사회협력 활동이 이 지역의 공예 제작의 창조환경에 기여하는 과정을 예술가, 예술작품 및 관련 자료, 그리고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밝히고 있다.

키워드: 창조환경, 혁신과 계승, 미술공예대학, 공예작가, 사회협력 성과

\* 이 논문은 「革新と継承を担う創造環境の形成過程—京都や金沢に立地する芸術系大学と工芸作家—」(혁신과 계승을 담당하는 창조환경의 형성 과정: 교토와 가나자와의 예술대학과 공예작가), 『文化経済学』 17권 2호(2020)의 가나자와 연구에 기초한다. 이 두 편의 연구는 일본학술진흥회(189K23236)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아츠코 마에다(Atsuko MAEDA)는 일본 도시샤대학(Doshisha University)의 창조경제연구소(Center for the Study of Creative Economy)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도시샤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으로는 「지방의 전통을 재구축하는 창조적 환경: 교육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과 지식 이전」 등 다수가 있다. 이메일: a-maeda@xa.catv.ne.jp

## 1. 머리말

한 지역의 전통을 상징하는 예술과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적자원, 구체적인 예술작품, 체계화된 지식과 더불어 글로벌 무대에서 지역의 창조환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화적 강점을 이끌어내는 교육연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경제학과 창의경제의 맥락에서 볼 때, 기존의 가치와는 다르게 다양하고 특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선도자로 간주될 수 있는 지방의 예술대학들과 그와 연계된 개인들이 수행한 사회 교육 및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

플로리다(Florida 2002a, 2002b)는 한 지역의 창조환경에 다양성과 개방성을 통합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창의성은<sup>1</sup> 지역의 경제 발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방법론이 여전히 알려지지



사진 1. 가나자와 성(城)의 이시카와 문  
출처: 가나자와 시(市) 웹사이트.

1. 가와키타(Kawakita 1993)는 창의성을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고 언젠가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않은 채로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가나자와의 지역 핵심인 미술공예대학과 이 지역에서 공예작가<sup>2</sup>로 활동하는 이 대학의 교원(敎員), 학생,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사회협력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공예작가들은 대학, 박물관, 직업학교, 기타 지역 및 글로벌 예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러한 창조환경에서 공유하고 보완하려는 상호작용 때문에 서로 인접한 곳에 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협력 활동이 개인, 조직, 체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포함하는 창조환경에 미치는 문화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고찰한다. 즉, 교육연구기관과 관련 개인들의 사회 연구 활동으로부터 도출되는 인적자원, 예술작품, 지식, 교육연구의 부가가치를 밝힌다(Maeda 2020, 2021).

## 2. 선행 연구

창조와 창조환경에 대해, ‘장’(場; ば: 일본어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장소와 시간’임)은 한가지 의미로 정의되지 않으며, 이 개념은 창의도시 이론, 창의경제, 지식창조론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다.<sup>3</sup> 사사키(Sasaki 2012)와 하기하라(Hagihara 2014)는 이 개념을 도시, 지역, 거주민 간의 상호작용으로 실현되는 가치창조의 환경으로 정의한다. 노나카 등(Nonaka et al. 1996)은 이를 기업체와 그 인적자원에 의해 구축되는 지식창조의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치창조의 ‘장’에서는 예술대학과 대학 관련 예술가 및

2. 플로리다(2002)는 예술가를 특히 창조적인 핵심의 하나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공예작가가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창조적 가치를 생산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창조계급으로 본다.

3. 창조의 ‘장’의 정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에다(2021) 참조.

사회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독창성이나 신념 등과 같은 암묵지(tacit knowledge)를 공유한다. 이 암묵지는 개별 공예작가, 예술작품과 관련 자료, 교육연구 프로그램 등에 흡수된 다음에 주변에 부가가치로 전달된다(Polanyi 1966).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혁신적이며 계승된 창조환경을 조성하는 시간과 공간이 실현된다.

이 연구에서 창조환경이란 예술대학과 그 대학 학생, 졸업생, 교원인 예술가들, 그리고 서로 인접한 곳에 소재하며 유기적으로 상호관계를 하는 조직이나 체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생에 걸친 참여로 정의된다. 이 연구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대학을 사회적 기반으로 삼으며 창조 공동체가 쾌적한 생활 환경이 되는 창조클러스터와 플로리다(2002a, 2002b)가 정의한 창조계급 사이의 관계이다.

포터(Porter 1998)가 산업집적론(Marshall 1890)을 바탕으로 정의한 산업클러스터 이론에<sup>4</sup> 따르면 과거에는 제조업체들이 교육연구기관이나 지방정부 등의 지원 조직과 유기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다. 외부 경제 효과의 수많은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창의경제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창조클러스터 이론이 부상하였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창조계급이 참여하는 창의산업은 일부 도시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들의 문화 생활은 경제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도 포함된다(UNCTAD 2010). 플로리다가 주창한 창조계급의 정의와 집적 효과에 대한 평가 지수가 비판을 받고 있지만(Pratt 2011; Markusen 2006), 현재 클러스터 이론의 목표 분야는 제조업과 ICT뿐만 아니라 창조예술(즉, 유리한 시장성과 작업 환경을 가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 (Piore and Sable 1984)에 따라 특정 지역에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공예 생산 체계는 인력 부족, 제품 디자인 개발,

4. 포터(Porter 1998)의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와 구성 요소에 따르면, “특정 분야에 속하며,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공통성과 보완성으로 연결된 사업체 그룹”이다.

기술 전승, 국내 공예클러스터의 국제화 등의 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Yamada 2013; Shigeno 2009). 하지만, 지역이나 예술대학의 창조환경을 공예 및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지역적 특성이나 제조업과 연관된 공예가 (응용)예술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표준화된 평가가 어렵고 공개된 자료가 부족해서 문화경제학과 창의경제 면에서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5</sup> 또한 마르쿠센(2006)은 산업클러스터 내 공예 생산 체계의 국제화, 고용 안정성, 연구 개발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 예술 활동과 예술가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조사했다. 지방 문화의 강점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지역에 지속가능성을 가져오려면, 지역의 예술대학과 관련 개인들이 교육연구 체계뿐만 아니라 선구적인 공예작가의 창작과 혁신적인 작품 및 관련 자료의 창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 문화의 상징이 되었으며 지방 산업과도 관련이 있는 현대 공예를 문화경제학과 창의경제의 맥락에서 논의한다.

둘째, 본 연구는 예술대학, 개인, 기관 사이에 조직과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협력에 의해 형성된 창조환경에서 공통성과 상호보완성을 보여주는 비영리 조직과 산업에 중점을 둔다.<sup>6</sup> 즉, 상호보완 및 시너지 요소를 지닌 조직 간 구조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창조환경의 지역적 특성(공간축)과 사회 구조의 변화(시간축)를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의 데이터 출처에는 공식 자료, 관련 기관과의 인터뷰(지난 10년간 300시간에 걸쳐 총 175회 이상 실시), 교원 및 졸업생 등 도예가들의 진로 분석(2014-2017년 실시), 공예 관광 사업의 전시 출품자들을 대상으로 한

5. ‘공예작가’로 분류되는 공공 정보에서는 이들이 교육연구기관의 전임 교수진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 어렵다.  
6. 대학 컨소시엄, 입주작가 프로그램(Artist-in-Residence) 시설, 독립 지원 작업장, 인근 교육연구기관, 문화 관광 시설, 공공 미술관 등.

설문조사(2016년 실시) 등이 포함된다.

예술가 및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연구기관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창조환경을 이끄는 주요 요소이다. 그러나 국내외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소개하고 자신의 창의성과 다양한 표현 및 전문기술을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관의 창조적인 ‘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적 과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즉, (1) 지속적인 경험에 기초한 학습과 연구,<sup>7</sup> (2) 예술작품의 제작과 발표, (3) 관련 자료의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공예작가는 대학 졸업 후 최소 10년은 걸려야 전문 공방을 차리고 도구와 천연재료를 조달하며, 경험을 통해 전문기술을 연마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다(Maeda 2021). 이 때문에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드로스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들 자신의 창조적 활동이 개인의 경력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한다(Throsby 2000).

### 3. 연구 방법 및 가정

본 연구는 주로 일본 가나자와에 있는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이하 “미술공예 대학”이라 한다)에 초점을 두면서, 응용예술로 분류되는 현대 공예와 이 대학의 학생, 졸업생, 교원으로 정의되는 예술가에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술관이나 직업학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개인 경력 개발, 예술작품의 제작과 발표, 교육연구의 사회협력으로부터 다양한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7. 성인의 발달 과정 분석에 대해서는 ‘역동적 기술 이론’(Dynamic Skill Theory) (Fisher and Bidell 2007) 참조.



사진 2.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도서관과 미술관(저자 제공)

또한, 본 연구는 교육연구기관과 공예작가의 가치창조로서 지식창조 모델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Nonaka and Takeuchi 1996).

우선, 본 연구는 선진 공예작가와 기타 전문가 양성, 작품 자료 개발 그리고 사회협력 연구를 하는 조직들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4가지 과정으로 분류한다: (1) 학습과 연구, (2) 제작과 발표, (3) 자료의 체계화, (4) 가치창조(그림 1). 다음으로, 이 조직들의 각 과정이 수행되는 ‘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이 과정들을 상호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외부 조직 체계, 그리고 조직들의 사회협력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 교육연구 성과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전제한다. 예술 교육연구기관과 선진 공예작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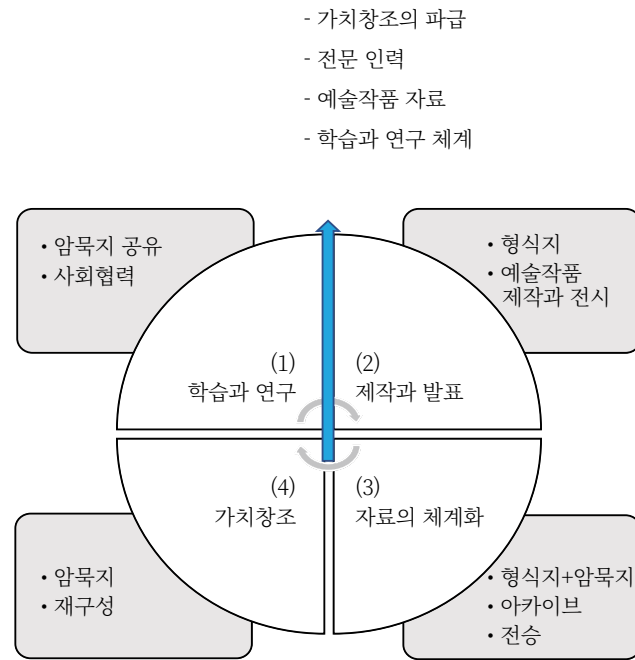


그림 1. 예술 교육연구기관 내 가치창조의 ‘장’  
 주: 사회화, 외부화, 종합화, 내재화(SECI: socialization, externalization, combination, internalization) 모델의 방법론 참조(Nonaka and Takeuchi 1996; Maeda 2021).

사회협력을 통해 국제성과 지역성이 혼합된 창조의 ‘장’이 형성되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선진 공예작가는 (1) 알려지지 않은 암묵지를 공유하고(독창성과 신념), (2) 사고와 오류의 과정을 통해 뛰어난 예술작품을 제작하고 창의적인 발표를 하며(형식지), (3) 예술작품과 관련 자료를 체계화한다(형식지). 광범위한 정보 보급은 (4) 각 조직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 환경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체계화된 지식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다(그림 1). 나아가 (1)에서 (4)에 이르는 ‘장’의 순환적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은 물론 상호보완적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 사회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 4. 미술공예대학과 창조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창조의 ‘장’

가나자와에서 활동하는 총 24명의 도예가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된 진로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이들의 창작 발표의 ‘장’은 20세기 말부터 다양해졌다. 연대순으로 말하자면, 이탈리아 파엔차 국제도자전, 일본 미노 국제도자전, 한국 세계도자비엔날레, 대만 국제도자비엔날레, 그리고 기타 국제 공개 모집 전시회, 입주작가 전시회, 예술제, 무역박람회 등이 있다. 이런 행사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의 일본 도예품은 전통적인 공예 재료나 방식을 사용한 독창적인 표현이라고 알려지면서, 회화와 조각의 대안적인 예술 형태로 해외 전문가와 수집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대학원의 연구 프로그램은 화이트큐브 전시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외 지역 예술제 및 다양한 창조환경에서의 전시 기획, 강의, 워크숍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미술공예대학과 직업학교에서는<sup>8</sup> 예술계의 전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수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를 감안해 보면, 가나자와의 미술공예대학, 직업학교, 미술관 및 다양한 관련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창조의 ‘장’로부터 창출되는 인적자원, 작품 자료 및 교육연구 프로그램의 부가가치가 지방의 창조환경에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은 지방의 문화정책과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지역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20세기 말부터 가나자와의 문화정책은 지역의 전통을 상징하는 예술과 문화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길을 구축하려는

8. 2021년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입학시험 결과에 따르면, 신규 등록 학생의 12%가 이시카와 현 출신이고(14%는 호쿠리쿠 지방에 있는 3개의 현 출신), 절반 이상이 일본의 가장 큰 3개 지역 출신이다. 최근에는 우타쓰야마 공예공방의 학생 대부분이 이시카와 현 이외의 출신이다(학교 임원들과의 개인 서신, 26/07/2017).

표 1. 가나자와 3개 교육연구기관의 기초 정보

기관명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 우타쓰야마 공예공방
설립 연도	1946	2004	1989
예술학과	미술, 디자인, 공예	현대 예술 (디자인, 공예 포함)	도예, 칠기, 염색, 금속공예, 유리공예
인원수	학생 722명, 교수 57명, 직원 14명 (2021년 4월 현재)	직원 39명 (2020년 3월 현재)	훈련생 28명, 직원 14명 (2021년 9월 현재)
연간 예산 (1엔=0.01달러)	13억 4500만엔 (2021 회계연도)	9억 800만엔 (2021 회계연도)	1억 5300만엔(2021 회계연도)이와 별도로 시에서 장려금으로 3360만엔 지급
방문객	-	2.3백만명(2019 회계연도)	-

출처: 각 기관과 가나자와 시의 연례보고서.

목표를 가지고 도시정책에 통합되어 왔다(Sasaki 2012). 1995년 가나자와 시는 가나자와대학과 이시카와현 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의 공동화에 대처하는 활성화 방안으로 ‘가나자와 국제도시 개념’과 ‘세계공예도시선언’을 공표했다.

그 대표적 조치로는 2004년에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개관, 2009년에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등재, 2015년에 호쿠리쿠 신칸센 고속열차의 가나자와 연장 개통 이후 문화 관광 유입 촉진 등이 있었다. 이 일련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국제적 차원의 창조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 전국의 젊은 공예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었다.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1946년 설립)과 더불어, 가나자와 공예의 창조환경의 국제화를 주도한 주역은 가나자와 우타쓰야마 공예공방(1989년 설립, 이하 “공예공방”으로 한다)으로, 이 공방은 ‘육성하다’, ‘연결하다’, 세계에 ‘전파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기관으로는 현대 미술의 맥락에서 오늘날의 공예를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21세기 미술관(2004년 설립)이 있다. 이 공예의 대부분은 일본 전역에서 온 개인들이 만든 것이다. 가나자와 예술창조재단(金沢芸術創造財団)은 공예공방과 21세기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대학이나 직업학교를 졸업한 공예작가가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대여해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공방과 작업장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가나자와 시가 개발한 것으로, 지역적 차원에서는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와 지도자를 확보하는 것이고, 국제적 차원에서는 예술, 공예, 관련 산업 및 지속적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가나자와의 창조환경에 대한 논의는 그림 2와 주석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를 통해 혁신과 계승을 담당하는 창조환경의 가치창조에 대한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상호보완 및 시너지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는 상호보완 및 시너지 요소를 갖춘 사회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인적자원, 작품 자료, 관련 교육연구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창조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추진 방안들의 특징은 현재 다양한 공예를 다루고 있는 미술공예대학이 21세기 미술관 및 공예공방과 협력하여 만든 창조적 ‘장’과 그 주변의 창조환경(상호보완 및 시너지 요소의 틀 안에서) 간의 관계이다.

먼저, 그림 2를 살펴보면 장소축(세로)과 시간축(가로)은 (1)에서 (4)까지의 과정으로 구성되고, 대학과 연계된 개인들의 나선형의 활동 경로와 교차한다.



사진3. 가나자와 우타쓰야마 공예공방  
출처: 가나자와 시 웹사이트.

공간축(세로)은 외부 조직과의 협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작품 자료를 창출하며 다각적인 사회협력 연구를 수행하는 미술공예대학, 21세기 미술관, 공예공방 등의 창조적인 ‘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보완 및 시너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추진함으로써, 21세기 미술관, 공예공방과의 협력 속에 다양한 선진적인 공예를 다루는 미술공예대학의 창조적 ‘장’과 그 주변의 창조환경(그림 2에 나온 상호보완 및 시너지 요소) 간의 관계가 증진된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공예작가와 각 공예클러스터에 위치한 직업학교와 사업체에 기반을 둔 지역의 인적자원 간의 교류는 자료와 도구의 개별 공급, 직업학교 학습 프로그램, 지역 예술 협력 사업 등 다층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sup>9</sup> 예술대학, 직업학교, 미술관 내 조직들 사이에서는 세 가지

9. 21세기 미술관 전시회인 “가나자와 예술 플랫폼”(2008)와 “미래를 향한 예술공예 전시회”(2012), 가나자와 세계공예트리엔날레(2010-), 가나자와 토리오에(燈涼會, 2010-2015), 가나자와 21세기 공예축제(2016-), 패셔너블 메세(Fashionable Messe) (2006-2015), 21세기 다카가미네 포럼(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2018 가나자와(2018) 등이 있다.

상호보완/시너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대학</li> <li>- 장인 작업장</li> <li>- 개인 공방</li> <li>- 저렴한 임대 공방</li> <li>- 각 생산 지역의 직업학교</li> <li>● 대학 컨소시엄</li> <li>● 입주작가 프로그램(AIR)</li> <li>● 해외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갤러리</li> <li>- 미술관</li> <li>- 지역 공예관</li> <li>- 공예 안테나숍</li> <li>- 예술 비평리더</li> <li>● 연구 결과물 전시</li> <li>● 지역 예술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대학</li> <li>- 산업연구센터</li> <li>- 일반/특수 미술관</li> <li>- 공예 협회</li> <li>- 공익 재단법인</li> <li>- 산업 협동조합 및 기타 지원 단체</li> <li>● 미디어</li> <li>● 학술지</li> </ul>	
21세기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학교 강의</li> <li>● 지역 예술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또는 공개 모집 전시회</li> <li>● 교원 연례 전시회</li> <li>● 학생/후린생 졸업 및 수료 전시회</li> <li>● 대학/학교 학습 결과물 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li> <li>● 예술가 및 작품의 아카이브와 정보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의 다양한 인적자원 교류</li> <li>● 지식 전달</li> <li>● 참여 교류를 통한 사회적 교육 증진</li> </ul>
우타쓰야마 공예공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공예대학 초청 강사, 지방 및 전국 전문가 등</li> <li>● 독립 지원 체계(연수비 면제, 작업장 활용, 인센티브 지급)</li> <li>● 입주작가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생/강사 및 작품에 관한 정보 관리</li> <li>● 역사적인 공예 자료의 아카이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전역에서 온 인재 유치</li> <li>● 정교하고 고유한 전문기술 개발</li> <li>● 지역 고유의 암묵지(부가가치로 활용하는 명시적 작품)</li> <li>● 인재의 현지 정착을 통한 활성화</li> </ul>
미술공예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협력, 국제교류, 예술 및 공예를 위한 연구 센터</li> <li>● 교외(필수/선택)</li> <li>● 교내(이론/기초 연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및 공예 연구센터</li> <li>- 캠퍼스 내 갤러리</li> <li>- 위성 디자인 미술관</li> <li>- 위성 아트 스튜디오</li> <li>- 위성 예술 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li> <li>- 예술 및 공예 연구센터</li> <li>● 학술 논문</li> <li>● 박사학위 논문</li> <li>● 수집 예술작품</li> <li>● 대학 소속 개인 아카이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경력의 선진적인 국제화와 다양화</li> <li>● 선구적 연구 축적</li> <li>● 자료 체계화</li> <li>● 지역 공헌</li> <li>● 부족한 지식과 암시적 지식의 결합 및 보급</li> <li>● 지역 인재 유지에 따른 협력</li> </ul>
과정	(1) 학습과 연구	(2) 제작과 발표	(3) 자료의 체계화	(4) 가치창조

그림 2. 가나자와의 창조적 환경 내 교육연구기관과 공예작가

주: 가로축(시간)은 조직의 4가지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로 구성되어 있고, 세로축(공간)은 다양한 교육연구기관간의 협력적인 측면과 외부의 상호보완 및 시너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예술가들은 시간(가로축)과 공간(세로축)을 나선형으로 활발하게 횡단하면서 자신의 전문 경력을 개발한다. 빨간색 글씨는 1980년대 이후에 도입된 요소를 나타낸다. ●는 프로그램이나 매체를 나타내고, ●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 밖의 기호는 시설을 의미한다.

요소들이 상당한 상호보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그 요소들은 (1) 외부 강사의 학습과 연구, 사회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일본 전역에서 온 젊은 인재와 강사의 양성을 위한 창조적인 ‘장’, (2) 정보의 국제적 보급을 위해 21세기 미술관의 역량을 활용한 발표, 그리고 (3) 미술공예대학의 지속적인 지식의 체계화, 미술관의 예술품 수집과 예술가 아카이브 작업, 직업학교 교유의 지식과 정보 수집 능력 등이다.<sup>10</sup>

미술공예대학에 기반을 둔 사회협력 연구의 구성 요소는 교내외 사회교육 수업(필수/선택 과정),<sup>11</sup> 미술공예연구소(1972년 설립)와 부속 갤러리(2017년 개관), 사회협력, 국제교류, 교육연구를 위한 3개의 연구센터(2006년 설립) 및 위성 예술 공간 등이다. 이 대학의 사회교육연구 부문과 사회협력 체계는 전문 인력이 거점 역할을 하고 전문 교원과 학생들이 연수(年數), 전공, 지위에 관계없이 협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 학생, 현지의 인적자원이 장기간 협력하는 프로젝트형 사회협력 연구 성과는 창조적인 제작과 발표, 자료의 체계화, 전달 등의 순서로 순차적이고 효과적으로 다음 단계의 ‘장’으로 발전한다(그림 2). 부가가치의 순환 체계는 조직 내, 조직 간, 그리고 협력하는 현지 인적자원이 속한 창조환경과 지역사회에서 다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사회협력 체계와 사회교육연구 부문(사회협력센터, 국제교류센터, 교육연구센터)은 대학 컨소시엄 이시카와, 가나자와대학, 지방 공공기관과 더불어 상호보완 및 시너지 요소가 된다(그림 2). 이러한 사회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교수와 학생은 우선 교내에서 이론과 기초 연습을 익히고, 학습 프로그램의 각 단계마다 현지 인적자원과 협업하여 현장학습 및 창조적 제작과 발표 등을 수행한다. 작품 자료들은 대학 내 갤러리, 도심에 있는 21세기 미술관, 그리고 인접해 있는 미술관 부속 대관 갤러리인 ‘이시카와

10. Maeda(2021) 참조.

11. 2019 대학 수업계획안 자료.

현정 기념 시이노키영빈관’(Ishikawa Prefectural Government Memorial Shiinoki Guest House, 2010년 설립)에 전시되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창작 발표는 학생들의 구술 발표나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사업 보고서, 교원용 대학 회보를 위한 지식 정보로 전환된다. 그런 다음에 이 디지털 자료는 온라인 웹사이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널리 배포된다. 또한, 이 연구 성과를 인정하여 개인에게 종종 상을 수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 학습 프로그램의 축적으로 도출된 연구 성과는 개인의 경력 개발<sup>12</sup>이나 교육연구기관의 높은 평판에 그치지 않고, 창조환경이나 관련 지역사회에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 예술대학이 미술관, 직업학교 및 이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는 조직 체계와 협력하는 프로젝트형 사회협력 사업은 (1) 다양성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인적자원 개발, (2) 창조적인 제작과 발표, (3)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체계화된 예술작품과 관련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가치를 보여주는 협력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서, 미술공예대학은 지난 10년간 아래에서 소개할 두 가지 프로그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것들은 (1) 다양한 종류의 암묵지 공유, (2) 시행 착오를 거쳐 제작된 선진적인 작품 자료, (3) 체계화된 지식, (4) 가치를 창출하는 순환적인 사회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적 기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일본 전역의 귀중하고 희귀한 공예 자료 수집과 ‘헤이세이시대의 핫코히쇼’ 연구사업으로 견본 도서 제작, 보존 및 활용(2009-2019 회계연도)

이 프로그램은 미술공예대학의 부속 기관인 미술공예연구소와 가나자와

12. 직접적인 성과로는 1) 다양화된 예술 환경에 적응하는 경험, 2) 초기 단계부터 국내외 주요 공공 전시 및 예술 행사에 참여 증가, 3) 진로의 다양화, 4) 주요 전시회와 예술 행사에서 수상 횟수 증가, 5) 지방 문화와 지역 주민에 대한 관심 증대를 들 수 있다.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17세기에 발간된 공예 자료집인 『햏코히쇼』(百工比照, Hyakko-Hisho)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고 현대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 4개의 공예 분야(염색과 직조, 옷칠, 금속공예, 도자기)와 희귀한 전통 산업 제품(일본 우산, 금박, 일본 종이)을 포함해 오늘날 관심이 높은 재료, 기술, 도구, 과정 등과 관련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학술, 문화, 제조, 관광업에 기여하는 것이다. 자료수집팀은 공예가로 활동하는 대학 교원, 큐레이터, 공예 장인, 그리고 가나자와 상공회의소, 가나자와 크레프트 비즈니스 창조기구(金沢クラフトビジネス創造機構), 직업학교, 미술관에 소속된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작업은 전국의 생산 지역에 위치한 대학, 협회, 조합과 협력하여 수행되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과외 활동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파트타임으로 참여했다. 현재 7,000개 이상의 자료가 수집되어 물리적 견본 도서,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및 문헌 자료 형태의 지식 정보로 전환되었다. 물리적 견본 도서와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는 미술공예대학의 교내 갤러리에서 상설 전시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또한 21세기 미술관의 시민갤러리(2013년과 2015년)와 한국 청주공예비엔날레(2019년)에서 전시한 바 있으며, 대학 교내외의 수업이나 스터디그룹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전문 분야, 직업, 조직의 경계를 넘어 산업계, 정부, 학계 간에 이루어지는 이 장기 프로젝트형 협력프로그램은 첫째로 (1) 학습과 연구, (2) 창조적 발표, (3) 창조환경에서 자료의 체계화와 보급을 위한 실험적인 ‘장’을 제공한다. 이것은 (4) 다양한 가치창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즉 관련 인력의 암묵지, 물리적 및 디지털화된 체계적인 자료, 사회협력 체계, 지속가능한 인적자원 개발 구조, 연구 개발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이런 조직 간 협력의 특징은 오늘날 다양한 예술적 표현을 다루고 있는 21세기 미술관의 자유로운 교류 구역을 창조적 발표의 ‘장’으로 자주 활용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보 보급 측면에서 미술공예대학과 직업학교의 보완적인



사진 4. 『헤이세이 노 햏코히쇼』(平成の百工比照) (사진: 저자 제공)

성격은 21세기 미술관과 인접한 문화시설의 갤러리 간의 협력에서 비롯되며, 이로써 이 지역의 문화 공예품을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국제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그림 2). 21세기 미술관의 방문객 유치 역량은 기존 공예 전시와는 다른 대규모 미술 전시, 국제 교류를 위한 ‘장’, 그리고 인근 문화시설로의 이동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회협력센터의 ‘스즈 도자기 재건사업’(2009-2012 회계연도), ‘오쿠-노토 사토우미/사토야마 아트 프로젝트’(2013-2015 회계연도) 및 대학 컨소시엄 이시카와의 ‘오쿠-노토 국제예술제 준비사업’ 지원(2016-2018 회계연도)<sup>13</sup>

13. 미술공예연구소의 『연구소보』(研究所報) (23-31), 대학 사업보고서 및 담당자 인터뷰(09/10/2014, 16/11/2016, 05/07/2018) 자료.

이 프로그램은 가나자와에서 북쪽으로 110km에 떨어진 스즈 시의 스즈야키 자료관(珠洲焼資料館)이 미술공예대학의 사회협력센터에 위탁한 프로젝트형 연구로 시작되었다. 스즈야키(스즈 도기)는 15세기 말에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최근 수십 년 동안 복원되어 왔다. 복원 30주년을 기념하여 도자기를 전공한 교사와 학생들은 현대 스즈 도기를 성형(成形)하고 옛 가마의 실험적 모델에서 구운 뒤에 이 자료관의 전시실과 부지에서 전시하였다. 관람객들이 선정한 작품들이 소장품으로 전시되었다. 스즈 도기 연구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로 얻어진 작품 관련 자료는 자료관에 부속된 위성 예술공간과 가나자와 도심에 있는 비영리 예술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 이후 자원하여 참여한 교원, 예술/디자인/공예 전공 학생과 해외 예술가들이 장기 체류하며 현지인과 공동으로 ‘오쿠-노토 사토우미/사토야마 아트 프로젝트’를 개발했다(Sakamoto et al. 2016). 계단식 논과 오래된 전통 가옥을 장기간 조사한 후 세심한 습도 조절이 필요한 공예 자료를 취급할 수 있는 기존의 전시 시설 대신에 이 장소를 전시 공간으로 설계하고 활용하였다(2013년). 2016년부터 이 사업은 대학 컨소시엄 이시카와의 ‘지역연구지원 세미나’로 발전하였고, 현대 미술, 디자인, 공예, 이론을 전공하는 교수와 학생들로 구성된 학제간 연구팀인 ‘스즈프로’(Suzupro)가 신설되었다. 앞서 언급한 교내 수업은 이론, 기초 실습, 그리고 현장 작업으로 구성되었다. 2017년 ‘오토-노쿠 국제예술제’에는 총 94명의 학생이 초대 작가로 초청을 받아 4개의 작품을 전통 가옥에서 전시하였다. 36개의 장소에 걸쳐서 열린 이 예술제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관람객이 참가했으며, 작품 1점이 상설 전시로 선정되었다. 그 이후 차후 예술제를 위한 현장 조사가 2021년에도 계속되었다.

실험 창작 전시, 워크숍, 조사 자료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지역 인재들과 협력하여 정보 보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흙, 옷칠, 일본 물감 등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작품의 통상적인 화이트큐브 전시회부터 야외 전시장, 계단식 논, 옛 전통 가옥 등과 같은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여하는 개인들은 서로 다른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을 다양화하고 국제화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미술공예대학은 사회협력 연구 프로그램과 스즈 도자기 복원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검증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이 대학은 또한 새로운 문화산업 프로젝트를 위한 실험적 공간을 마련하고, 기존 환경에서 전통의 혁신과 계승을 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와 청년들 간의 교류를 통해 다른 문화 간의 암묵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 5. 교육연구기관에 의해 형성된 창조환경과 공예클러스터

도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공예작가들의 진로(Maeda 2021)는 미술공예대학, 직업학교, 미술관 등의 지역 핵심이 창조적 토대가 되고 관련 기관들이 서로 인접해 있는 창조환경과 생활환경이라는 공간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학생(연수생), 교사(강사 및/또는 연구자), 예술가(공예작가 및/또는 디자이너), 지역민으로 참여하는 시간축은 시간과 공간의 교차로 나타난다(그림 2).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공예대학, 21세기 미술관, 우타쓰야마 공예공방의 창조적 ‘장’은 상호보완하면서 삼각형을 형성하고, 관련 단체와 시설은 각 기관의 주위에 유기적으로 모여 있다.

대학(Forida 2002a; Martel 2006), 미술관(Lazzeretti 2008), 직업학교(Piore and Sable 1984)로 구성된 유기적 집합체의 사회협력은 예술의 국제성과 문화의 지역성이 지속적으로 혼합되어 창작 활동의 다양화를 가져오는 창조적인 공유의 ‘장’이다.

위의 연구 성과는 교육연구기관의 국제화 및 지역 공헌에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기여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핵심인 예술대학이 미술관이나 직업학교와 조직 간 협력을 통해 창조의 ‘장’을 활성화할 때,

그 결과는 각 예술가의 암묵지, 예술작품과 관련 자료, 그리고 사회협력 프로그램에 의해 창조환경 내에서 순환된다(그림 3의 상자 참조). 즉, 이 창조환경에는 상호보완 및 시너지 요소에 의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기관이나 기존 공예클러스터와 문화 관광 시설이 포함된다.

가나자와 교육연구기관에 의해 형성된 창조환경은 개인, 부서, 단체 간의 직종이나 분야를 넘어서서 산업계, 정부, 학계가 협력하는 복합적인 구조이며, 가나자와 시를 넘어 주변 도시로 확장된다. 가나자와 예술창조재단이 운영하는 공예공방과 기존 클러스터의 직업학교에서는 교사, 강사, 졸업생이 상호교류하며, 그 밖의 다른 직업학교나 지역 산업과는 다른 관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공예 분야의 교육예술기관과 그 인적자원의 사회협력은 개인의 암묵지, 예술작품과 관련 자료, 학습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특성(보편성과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고유성과 전문지식)이 교차하고 융합하는 창조의 ‘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가나자와 시의 당면 과제는 젊은 공예 인재를 확보하여 양성할 수 있도록 시설을 유지하고 체계를 지원하여 국제사회에서 지방 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창조환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나자와 지방정부는 공예작가의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원과 인적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 6. Conclusion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예술의 혁신과 계승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하는 미술공예대학, 미술관, 직업학교들은 그들과 연계된 예술가들의 협력을 통해 국제성과 지역성이 교차하는 ‘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인적자원, 예술작품 및 관련 자료, 학습 및 연구 방법의 전승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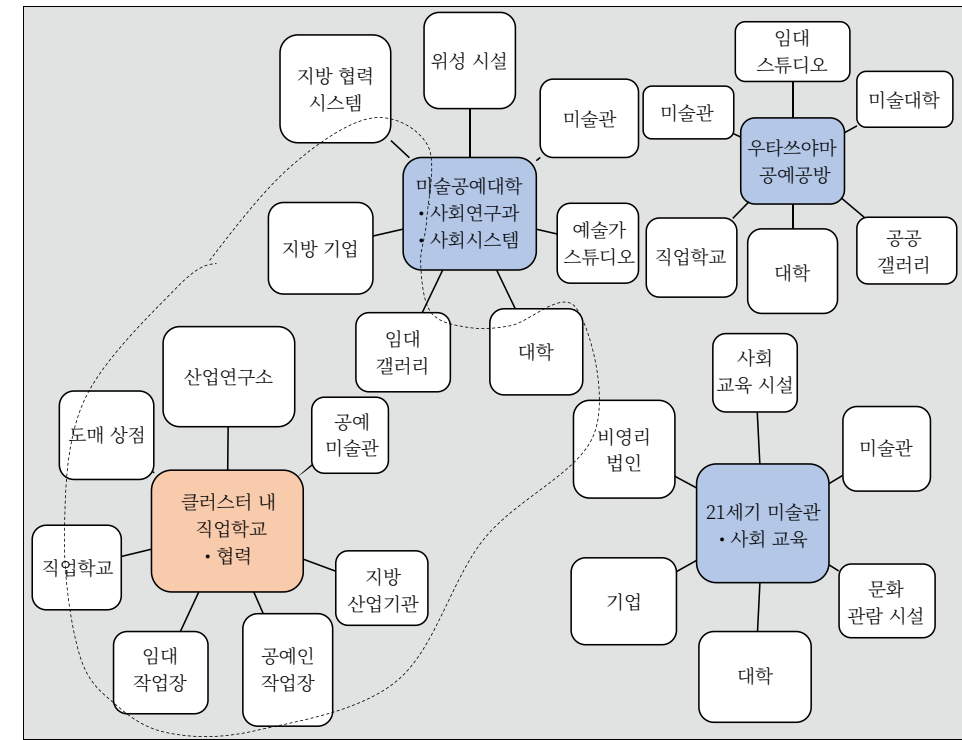


그림 3. 일본 가나자와 지역의 창조환경과 창조클러스터  
 주: 점선은 기존 산업클러스터, 실선(상자)은 공예의 창조환경, 바깥 틀은 창조클러스터를 나타낸다.

창조환경의 조성을 촉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예술의 강점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의 전통을 상징하는 스즈 도자기의 복원, 이해, 보급을 목표로 한 사회협력 연구는 새로운 예술 사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10년에 걸쳐 진행된 현대 버전의 『햏코히쇼』를 제작, 보관, 활용하기 위한 사회협력 연구는 관광 자원으로서 또는 전통산업에서 공예 기술을 전승하는데 기여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창조환경에서 이러한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전승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4가지 기능이 필요하다(그림 1과 그림 2). 따라서 개인, 조직, 사회협력 체계를 통해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지역 전통을 상징하는 문화예술에 혁신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미술공예대학, 미술관, 직업학교 및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산업클러스터(Porter 1998)나 위에서 정의한 창조클러스터(Florida 2002a)와는 다른 구성 요소들이다. 그 이유로는 이 요소들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혼합된 지식과 그 지식이 구현된 예술작품을 모두 전달할 수 있고, 지방 전통을 상징하는 문화자산(인적자원, 예술작품 및 관련 자료)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속가능하게 생산하는 사회 인프라(교육과 연구)를 창조환경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가 지역 문화를 재평가, 이해, 홍보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 논의된 개인의 암묵지, 관련 자료와 예술작품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창조는 주변의 창조환경과 생활환경(지역사회)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의 전통을 혁신하고 계승하는 창조클러스터와 지역사회가 조성된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국제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활동적이면서 교육연구 기관과 평생 교류할 예술가(교사, 강사, 졸업생, 공예작가 등)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젊은 인재를 개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체계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Fischer, Kurt, and Thomas Bidell. 2007. "Dynamic Development of Action and Though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 313-399.
- Florida, Richard. 2002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 \_\_\_\_\_. 2002b. "The Economic Geography of Tal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2.4: 743-755.
- Hagihara, Masaya 萩原雅也. 2014. 『創造の場から創造のまちへ』 (From Creative Millie to Creative City). Tokyo: 水曜社.
- Kawakita, Jiro 川喜田二郎. 1993. 『創造と伝統』 (Creation and Traditions). Tokyo: 祥伝社.
- Lazzeretti, Luciana. 2008. "The Cultural Districtualization Model." In *Creative Cities, Cultural Cluster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93-120. Cheltenham, UK: Edward Elgar.
- Maeda, Atsuko 前田厚子. 2020. "革新と継承を担う創造環境の形成過程-京都や金沢に立地する芸術系大学と工芸作家" (Formation Process of the Creative Environment Responsible for Innovation and Succession: Art University and Craft Artists in Kanazawa, Japan). 『文化経済学』 (Culture and Economics) 17.2: 18-33.
- \_\_\_\_\_. 2021. 『地域の伝統を再構築する創造の場』 (Creative Environment Which Reconstruct Local Traditions). Tokyo: 水曜社.
- Markusen, Ann. 2006. "Urban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a Creative Class: Evidence from a Study of Artists." *Environment and Planning A*

- 38.10: 1921-1940.
- Marshall, Alfred. 1890. *The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Macmillan.
- Martel, Frédéric. 2006. *De la Culture en Amérique*. Paris: Editions Gallimard.  
Chapter 9.
- Nonaka, Ikujiro, and Hirotaka Takeuchi. 1995. *The Knowledge-Creating Compan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iore, Michael, and Charles Sable.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ossibilities for Prosperity*. New York: Basic Books.
- Polanyi, Michael. 1966. *The Tacit Dimens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 Porter, Michael E. 1998. *On Competition*.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Chapter 2.
- Pratt, A. C. 2011.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the Creative City." *City, Culture and Society* 2.3: 123-130.
- Sakamoto, Hideyuki, Nakase Koji, and Manabe Junro 坂本英之, 中瀬康志, 眞鍋淳朗. 2016. "奥能登における芸術と地域の融合についての研究: 奥能登アートプロジェクト2015" (A Research on a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Places through the Art Project in Noto 2015). 『金沢美術工芸大学紀要』 (Bulletin of Kanazawa College of Art) 60: 10-15.
- Sasaki, Masayuki 佐々木雅幸. 2012. 『創造都市への挑戦』 (The Challenge for Creative Cities). Tokyo: 岩波書店.
- Shigeno, Hiroki 滋野浩毅. 2009. "伝統産業が保有する文化的価値に関する考察—京都市域の伝統産業産地における取組事例をもとに" (Consideration on Cultural Values Intrinsic to Traditional Industries). 『文化経済学』 (Culture and Economics) 6.3: 125-135.

UNCTAD. *Creative Economy Report 2010*.

Yamada, Kozo 山田幸三. 2013. 伝統産地の経営学 (Management of Traditional Industrial Clusters). Tokyo: 有斐閣.